독일 4부리그 우승에 말 바꾼 바이에른 뮌헨

‘공격 핵심’ 정우영, U-20 대표팀 합류 불발

뮌헨2군 승격 PO 겹쳐 차출 반대
제주 DF 이규혁 대표팀 대체 발탁

정우영(바이에른 뮌헨)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이 불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정우영의 소속구단 사정으로 인해 차출이 불가능해졌다. 이규혁이 대체 발탁된다”라고 발표했다. 이규혁은 14일 폴란드로 출국해 U-20대표팀에 합류한다.

U-20대표팀으로선 큰 악재를 만났다. 당초 대표팀은 공격수 정우영의 합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강인(발렌시아) 등과 함께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정정용 감독이 뮌헨 구단을 방문해 협의 과정을 거쳐 월드컵 출전을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U-20월드컵은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여서 만에 하나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뮌헨2군의 독일 4부리그 우승이 발목을 잡았다. 4부리그는 지역 우승팀이 3부리그로 자동 승격되지 않는다. 우승팀끼리 승격 플레이오프(PO)를 치러야 한다. 뮌헨2군은 22일과 26일 PO를 갖는데, 이 일정이 U-20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과 겹친다. 결국 뮌헨2군은 이번 시즌 핵심 선수로 활약한 정우영의 대표팀 차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12일(한국시간) 폴란드 그니에비노에서 열린 뉴질랜드 U-20대표팀과 친선경기에서 1-1로 마친 가운데 승부차기 끝에 7-6으로 승리했다. 한국의 선제골은 조영욱(FC서울)이 전반 9분 터뜨렸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FIFA U-20월드컵을 앞둔 한국은 17일 에콰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26일 포르투갈과 F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29일 남아공과 격돌하고, 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정우영

수원 삼성 염기훈(26번)이 12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프리킥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제주 유나이티드

데얀이 뚫은 ‘혈’…수원, 5경기만에 승점 3

데얀, 제주전 전반 38분 동점골
구자룡 결승골·타가트 쐐기골

수원 삼성이 5경기 만에 귀한 승리를 수확했다. 수원은 12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 3-1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7일 강원FC전 승리(2-0) 이후 직전 4경기에서 3무1패에 그치면서 승리가 없었던 수원은 제주 원정에서 5경기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당초 수원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다. 제주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이전까지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수원과 달리 제주는 점차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였다. 개막 9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제주는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성환 전 감독 대신 최윤겸 감독 부임 후 첫 K리그1 일정이었던 4일 경남FC전에서 2-0으로 승리,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제주는 이 여세를 몰아 연승을 타겠다는 각오였다.

예상대로 경기 초반 수원은 마그노와 권순형을 앞세운 제주의 공세에 고전했다. 전반 22분에는 권순형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다. 수원은 전반 38분 데얀이 상대 수비수 알렉스에게 맞고 나온 볼을 데얀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차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내내 제주의 압박에 시달렸던 수원은 데얀의 골이 전환점이 됐다. 후반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후반 3분 염기훈의 패스를 받은 구자룡이 역전골을 터뜨린 데에 이어 3분 뒤(후반6분) 사리치의 패스를 받은 타가트가 골로 연결하며 추가 득점까지 올렸다. 수원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었다.

경기 후 수원의 이임생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다. 전반 상대 플레이에 고전했는데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추가실점 없이)잘 막았다. 공격수들이 득점을 하면서 후반에는 우리 의도대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골을 터뜨린 데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데얀은 최근 출전시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감독은 “데얀이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에도 골을 넣었다. 칭찬하고 싶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데얀의 득점을 반겼다.

수원은 3승4무4패(승점13)로 성남FC(3승4무4패·승점13)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수원14골·성남9골)에서 앞섰다. 반면 제주는 승점 획득에 실패, 1승4무6패(승점7)가 되면서 11위에 머물렀다. 최하위(12위) 인천 유나이티드(1승3무7패·승점6)와는 여전히 승점 1차다. ‘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보수공사 관계로 올 시즌 제주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를 치러온 제주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다시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권창훈 ‘극장골’…디종 1부 잔류 불씨 살렸다

17위 모나코에 승점 2차 추격

권창훈(25·디종)이 ‘극장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의 1부 잔류 불씨를 살렸다.

디종은 12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슈타드 가스톤 제라드에서 열린 2018~2019 프랑스 리그1(1부리그) 36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권창훈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이로써 19위 디종은 승점 31(8승7무21패)로 17위 모나코(7승12무17패·승점 33)와의 승점차를 2점차로 좁히면서 1부 잔류 가능성을 이어갔다.

권창훈이 투입된 시점은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31분이다. 왼쪽 미드필더로 뛴 그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팀 공격에 힘을 보탰고, 후반 추가시간 마침내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휼리오 타바레스가 아크 부근에서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 머리로 떨궈준 볼을 권창훈 이 페널티지역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디종 권창훈(왼쪽 두 번째)이 12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슈타드 가스톤 제라드에서 열린 2018~2019 프랑스 리그1 스트라스부르와의 홈경기 후반 추가시간 2-1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디종 FCO 홈페이지

여전히 강등권인 디종은 19일 파리생제르맹과 원정경기, 26일 툴루즈와 홈경기를 통해 잔류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리그는 19위와 20위 팀은 곧바로 강등되고, 18위는 2부리그 3위 팀과 승강 PO를 치른다.

한편 이탈리아 세리에B(2부 리그)에서 뛰는 이승우(21)의 소속팀 베로나는 2018~2019시즌 세리에B 최종 36라운드 홈경기에서 포자를 2-1로 눌렀다. 승점 3을 추가한 베로나는 리그 순위를 9위에서 6위(승점 52)로 올려 8위까지 주어지는 승격 PO 진출권을 획득했다. 세리에B는 1, 2위 팀은 1부리그로 승격되고, 3~8위 팀은 PO를 치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손흥민

팬들도 인정한 손흥민 50m 질주골 최고였지

〈EPL 11라운드 첼시전〉

토트넘 ‘올해의 선수·골’에 선정

손흥민(27)이 토트넘 팬클럽 회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의 주인공이 됐다. 또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빠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오피셜 서포터스 클럽 엔드 오브 시즌 어워즈’ 행사를 열었다. 구단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와 최고의 골, 올해의 신인 등을 선정한 가운데 손흥민이 2개 타이틀의 영광을 안았다. 구단은 이번 행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참석한 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흥민의 수상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에는 힘들어했지만, 중반 이후 몰아치기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이번 시즌 초반 강행군을 거듭하면서 정작 리그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11월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한 게 전환점이 됐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고, 올 시즌 현재까지 20골(정규리그 12골·FA컵 1골·리그컵 3골·UCL 4골)을 기록했다. 리버풀과의 UCL(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6월 2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다. 손흥민이 지난해 11라운드 첼시전에서 터트린 50m 드리블에 의한 득점은 가장 인상 깊은 골로 선정했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더 선’이 맨체스터시티와 리버풀을 뺀 나머지 18개 구단 선수 중 베스트 11을 선정한 가운데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정됐다. 피에르 오바메양(아스날)과 에당 아자르(첼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의 부재에도 문제가 없었다. 시즌 중 두 번이나 케인이 빠졌지만 손흥민이 이를 잘 메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흥민은 과소평가로 자주 언급되는 선수이고, 여전히 과소평가됐다”면서 “경이로운 시즌을 보내며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칭찬했다.

최현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